



여명학교

통일시대 통일시대

안종국

#1 오늘 경식은 선생님께 불러나가 학생들 앞에서 야단을 맞았다. 지난번 지리 시험문제 중 대구의 특산과일을 묻는 질문에 바나나라고 답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가 어디에 있는 지조차 모르는 탈북청소년인 경식이로서는 그곳의 특산과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고민 끝에 그저 오고 가며 제일 많이 본 과일인 바나나를 답으로 적었고 경식이가 탈북청소년인지 모르는 선생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의 답을 바나나로 적어낸 경식의의 답안이 황당해 경식을 불러내 야단을 쳤던 것. 그날 경식은 아무리 해도 자신이 남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2 순미네 반은 반장을 돌아가면서 한다. 순미 역시 반장을 해야 하는 순서가 돌아왔다. 북한에 있었으면 당 간부 자녀에게나 들

아가는 반장자리를 순미가 하게 된 것. 순미의 생활이 궁금한 담임선생님은 어느 날 순미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었고 순미는 "선생님, 제가 참 바쁩니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순미를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한 담임선생님은 순미에게 "그러니? 그럼 빨리 가보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바쁘다는 말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의미인 것을 담임선생님은 몰랐다.

#3 사회시간. 학과 담당선생님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순간 영호는 손을 번쩍 들고서 "선생님, 탈북자들을 도운 적 있습니까?"라면서 "우리들은 밥 때문에 죽을 고비를 두세 번 넘기고 남한으로 왔는데 이곳은 아이들이 너무 먹어 살이 쪼서 살 때는데 40~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순간 선생

여명학교는 북한 정권과
중국의 정권 그리고 남한사회로부터도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 실천의 모색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명학교 교장 우기섭 장로

통일의 일꾼으로 세운다

과 반 아이들의 싸늘한 시선이 영호에게 꽂혀졌고 영호는 그저 피해의식만이 가득한 탈북청소년으로 또 비취졌을 뿐이다.

23개 교회가 협력하여 설립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고등 학령기 탈북청소년은 약 560여명. 그러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그 가운데 10여명 정도만 일반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청소년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자녀들이 교육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부모인 자신들이야 그럴대손 치더라도 교육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내일 역시 밝지 않은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문을 연 여명학교(이사장 박명식·교장 우기섭)는 이런 탈북청소년의 문

제를 끌어안고 해결해가기 위해 탈북자들을 돕던 현장 활동가들과 송파제일교회와 남서요은교회회를 비롯, 23개 교회가 협력하여 설립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등 과정의 대안학교다. 지난 학기에 24명의 학생을 선발, 예비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고 올 3월부터 중등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2년에 마무리하는 전 3년간의 정식학제가 시작된다.

여명학교의 목표는 탈북청소년들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통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남한의 자유경제체제와 민주체제 시스템을 익히도록 해 통일 이후 북한 사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키워나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반북생활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교육과 함께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므로
고난을 겪고 이땅에 오게 하셔서
통일 되었을 때 남한을 북한에,
북한을 남한에 소개하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알타기 놀이를 하는 여명학교 여학생들



여명학교 오라엔테이션 일정의 하나로 진행된 레프팅

“힘들지 라고 물어볼 때 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지요.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그저 제 또래의 아이들과 동일하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동정이나
우월한 입장이 아니라
잘해낼거라는 격려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 내 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그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의 사람들 대다수는 5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북한정권의 붕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붕괴 이후 누가 어떻게 북한사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여명학교 사람들은 그 일의 주체가 남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 스스로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땅의 경제제도와 민주주의를 일궈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온 탈북자들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선 발하셔서 이곳에 보내진 이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한 사람 스스로

실제로 탈북과정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중국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는 90% 이상이 사

선을 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서 신앙을 갖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들의 아픔보다는 문제만 보며 기다려주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여명학교는 북한 정권과 중국의 정권 그리고 남한사회로부터도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 실천의 모색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설립에 참여한 23개 교회가 학교 재정과 교원수급 그리고 제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식사도 23개 교회가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제공해오고 있다.

학교가 처음 문을 열고 가장 우려했던 것은 학생들의 출석상황.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수동적인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학기가 끝날 때에는 돈을 벌겠다며 중도에 그만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한다

현재 한 학기 예비학교 과정을 마친 여명학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재정확보. 23개 교회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남한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모두 다섯 개. 그중에서 학생 30여명 정도를 가르치는 여명학교가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도 여명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때 다른 학교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할 만하다.

“이 일은 지금 시작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은 통일 현장에 길을 내는 학습 비용이며 통일 비용인 셈입니다. 그리고 궁핍 비용이 아닌 것은 이들이 단순히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이들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들로 북한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곳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내 보내신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선생의 말이다.

과연 씨앗만을 보고서 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가? 씨앗에서 현재의 씨앗만을 보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을 통해 나무를 보는 이들은 씨앗을 심고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나무로 자라나게 할 것이다. 여명학교 사람들은 탈북청소년들이라는 씨앗을 통해 통일 이후 새롭게 세워질 북한사회라는 나무를 내다보고 씨앗을 키워나가는 이들이다. †

●여명학교를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 888-1673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은행 434701-01-112388(여명)으로 하시면 됩니다.